

# 불법 다단계 하도급 복마전 드러나 붕괴 책임·비리 연루 등 35명 송치

‘학동 참사’ 500여일만에 수사 마무리

### 광주경찰, 9명 구속·26명 불구속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집유 브로커 도피 등 수사력 허점도 “깃털만 건드렸다” 수사·판결 지적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철거건물 붕괴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500여 일 만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참사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자와 재개발 사업 비리 관련자들 총 36명을 입건해 35명을 기소의 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해 수사결과를 검찰에 넘겼지만, 1심 재판에서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형량이 가벼웠다. 경찰은 참사 수사가 아쉬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27일 ‘광주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학동참사 수사를 마무리지었다고 밝혔다. 구속 9명, 불구속 26명 등 총 3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학동참사 수사를 끝마친 것이다.

지난해 6월 9일 오후 4시 20분경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지 앞을 지나던 시내버스가 철거가 진행중인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매몰됐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17명의 승객중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바로 전담수사본부를 꾸리고 붕괴 원인과 책임자를 찾는데 수사를 모았다.

수사 진행 도중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의 재개발 복마전이 속속 드러나면서 경찰은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비리까지 모두 밝혀줬다는 의지로 수사에 총력을 집중했다.

학동 3-4구역 재개발사업에 참여했던 폭력조직 출신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과 학동 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등 조합 관련자 7명을 무더

## ■ 광주 학동참사 사고 발생부터 수사 종료까지

2021년 6월 9일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 붕괴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17명 중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
6월 10일	시공사·철거업체·감리 등 5곳 압수수색.
6월 16일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8월 27일	광주지법, 사고 현장 현장검증 및 브로커 이모 씨 등 사건 첫 재판 시작.
9월 11일	해외 도피한 브로커 문 전 회장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검거.
2022년 2월 25일	현대산업개발 임원 1명 구속영장 기각.
9월 7일	광주지법, 붕괴 사고 직접 책임자 1심 선고. 철거업체 백솔 대표·한솔 현장소장 각 징역 3년 6월, 감리 차모씨 징역 1년 6월, 현산 현장소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현산 안전부장·공무부장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철거업체 디원 현장소장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9월 28일	광주지법, 재개발 비리 관련 브로커 문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월 추징금 9억7000만원 선고.
10월 6일	조합 관계자 4명, 정비업체 관계자 2명, 공사업체 관계자 4명 등 10명 송치(1명 불기소 송치)
10월 27일	재개발 비리 관련자 12명 추가 송치하며 최종 35명(구속 9명, 불구속 26명) 송치.

기로 추가 입건하는 한편, 조합과 광주시, 동구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합과 시공사, 철거업체 간 연결고리 및 계약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수사력이 초점을 맞췄다. 또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며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실시했다.

경찰은 붕괴로 이어진 부실 철거공사와 관련해 감리자, 원청·하도급·재하도급 관계자 등 9명(5명 구속)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 재판이 진행됐지만, 결과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수)는 건물 철거를 직접 수행한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관계자, 감리 등 3명에게 각각 실형과 함께 범정부구속했다. 하지만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3명과 석면 철거 하청업체 소장에게는 집행유예, 벌금형에는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은 “몸통은 내버려 둔 채 깃털만 건드린 바주기”라며 “피해자 가족의 마음에 대못을 박고 대한민국 안전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경찰의 수사력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는 부족했던 것 아니었

나”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에 검찰은 공사 관계자 7명 전원과 법인 2곳(현대산업개발·백솔기업)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광주고법에서 열릴 예정이

다. 경찰은 또한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한 브로커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5명(4명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인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미국으로 도피해 수사력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씨가 자진귀국하면서 수사는 재개됐고 경찰은 뒤늦게 업체 4곳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해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9억7000만원의 선고를 이끌어 냈다.

경찰은 원청업체의 입찰방해, 하도급 업체들의 담합, 공사금액 불풀기 등, 정비사업전업업체 배인에도 수사력을 집중해 관계자 등 21명(기중 송치자 중복 2명 제외)을 재개발 비위로 검찰에 넘겨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로서 500여일에 걸친 경찰 수사는 일단락됐다. 미흡은 부분은 이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으로 가려지게 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이혼 통보 아내 잔혹 살해한 남편 징역 35년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해치는 행위인 살인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이후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아 그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13년간 피고인의 배우자로 있으면서 피고인의 살해 위협에도 자녀들의 아버라

는 이유로 참아왔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의 충격, 공포는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5월 여수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아내를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잦은 가정폭력에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찾아갔고, 자신을 피해서 차 안으로 피신한 아내를 뒤쫓아가 차를 파손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씨는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전통 밥상보 만들기 '광주대표음식 힐링 페스티벌' 참가자들이 27일 광주시 북구 남도향동음식박물관에서 전통 밥상보를 만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차량 잇따라 들이받아

### 광주서부경찰, 40대 입건

경찰에 인계됐다.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려다 오토바이 등 차량 2대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27일 새벽 0시경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삼거리에서 오토바이와 9.5t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A(40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자 급히 차를 돌려 단속현장 반대 방향으로 360여m를 운전한 뒤, 큰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다 주황 중이던 오토바이를 쳤다. A씨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뒤편까지 반대쪽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까지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다.

사고 직후 A씨는 자신의 밴드 차량을 버려두고 도주하려 했으나 인근에 있던 시민이 붙잡아

경찰에 인계됐다. 이 사고로 A씨와 화물차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A씨 요구에 따라 채혈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을 거쳐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묻는 한편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도움을 준 시민에게 상패를 수여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사직서 수리 전 철회 직원 의원면직은 부당해고”

### 광주비엔날레재단 직원 승소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 전 사직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의원면직시킨 광주비엔날레재단의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신복메)는 A씨가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재단에 대해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3700여만원과 올해 7월부터 복직 시점까지 매월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사내결재시스템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부서장과 직원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알게 됐다.

김선정 당시 대표이사의 지시로 전시 관련 계약을 했음에도 부당하게 징계를 받게됐다고 여긴 A씨는 인사팀장과 SNS 대화 중 사직서 파일을 전송했고 총무부장과 인사팀장의 책상 위에 날인이 없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사팀장은 다음날 실무자에게 “서명·날인이 없는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전하라”고 말했다고 A씨가 희망한 퇴직일인 4월 12일이 지나서도 계속 업

무를 하도록 했다.

A씨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고 인사위원회에 참석까지 했으나 재단으로부터 비엔날레 폐막일인 5월 9일 이후 징계 인사위원회가 연기된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았다. 하지만 들은 5월 5일자로 의원면직한다는 인사명령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이에 의원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의원면직 무효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퇴직 희망기한 내에 재단이 근로계약 합의 해지를 승낙하지 않았고, A씨 역시 재차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사직의사가 철회됐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0개> ※QR코드: 법원경매정보 앱으로 접속합니다.					
[아파트]					
2022타경 4111	2	남구 덕평면1길3, 가동 11층 1101호 [풀산동, 이안(가아파트)] 84.9113㎡	아파트	314,000,000 314,000,0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22타경 3699	1	남구 월산동 1048-92 106.1㎡ 남구 대남대로283길 8-3 1층60.41㎡ 2층 46.70㎡ 부속건물 단층승0.9㎡ 제외외 부로 등 29.1㎡	대 단독주택	153,577,930 153,577,930	일괄매각, 제외외 건물포함
2022타경 65369	1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475 304㎡ [김정차1/2지분전부, 두지북측인접지 476번지 및 동측인접지 474번지 외원형경계선은지적도공부 외상이하어정확한것특약임]	대	18,876,800 18,876,800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회제 한)], 제외외건물포함하여일괄매각 [단, 경정지분제외 한함]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22타경 4817	1	서구 전평길34, 7층 3층 304호 [매월동, 그항빌520] 84.07㎡	연립주택	429,000,000 429,000,000	
[대지/임야/전답]					
2019타경 1464 2018타경 9959 2018타경 12405 [총복]	1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289-27 188㎡ 동소 289-28 266㎡ 동소 289-29 491㎡ [제외외건물(참고)매각 제외]	전 전 전	79,982,000 79,982,000	일괄매각, 목축3-5일부임야
	2	동소 289-32 408㎡ 동소 289-33 414㎡	전 전		
	3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258-1 492㎡ 동소 258-2 468㎡ [일부임야]	전 전	46,080,000 46,080,000	일괄매각
	4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산22-1 194㎡ [공부상임야이나현황 '전및일부부전']	임야	5,044,000	맹지
	5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산22-6 303㎡	임야	2,424,000	공부상임야이나현황 '도로및일부부전'
	6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264-1 1135㎡ [지상전답디매각제외]	전	48,805,000	맹지
	7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318-1 4176㎡ 동소 산9 595㎡ 동소 산9-2 794㎡ 동소 산9-3 694㎡ 동소 산9-4 892㎡	전 임야 임야 임야 임야	244,369,000 244,369,000	일괄매각, 목축전도는자연임상대, 목축11-13, 15송구자본모소제확인불가, 목축12, 13맹지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288-6 1360㎡ [송구거저본소소재부락인불가]	임야	46,240,000 46,240,000	맹지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9타경 1464 2018타경 9959 2018타경 12405 [총복]	8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127-3 760㎡	답	38,000,000 38,000,000	현목답
	9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산60-22 1476㎡ [송구거저본소소재부락인불가]	임야	44,280,000	맹지
	10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329-1 1309㎡ [공유지정원면적937/1309지분전부, 맹지]	답	15,086,000 15,086,000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회제 한)]
	11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266-1 5604㎡	답	201,744,000 201,744,000	
	12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288-5 5461㎡ [일부지상인접지외결제타인소유건물소재]	전	229,362,000 229,362,000	식재원전디매각제외
2022타경 65	13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289-30 846㎡	전	28,764,000 28,764,000	이적도상맹지이나친입가능
	14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산22-5 1710㎡ [공부상임야이나현황 '전및일부부전']	임야	41,040,000 41,040,000	지상분도1기있음
	15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270 336㎡ [공부상임야이나현황 '전및일부부전, 도로']	전	12,768,000 12,768,000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495-4 824㎡ 동소 495-8 857㎡ 동소 495-9 857㎡	전 전 전	593,680,000 593,680,000	목축1-5공부상지목전이나현황 '주거나지'이고전원단지조성중으로서도목축사진행중,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청부민사상소회심사청고]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495-22 510㎡ [수목묘양매각, 제외외우산각매각제외]	전	231,270,000 231,270,000	목축7-9공부상지목전이나현황 '주거나지'이고전원단지조성중으로서도목축사진행중
2022타경 2948	1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359-16 432㎡ [인접지외지적경계불명, 측량요]	답	120,096,000 120,096,000	공부상임야이나현황 '상업용지나지'
	1	영광군 군남면 설매리 1164 843㎡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공부상임야(목전)']	전	7,249,800 7,249,800	소독도에점한하나친근여름
2022타경 64601	1	영광군 묘향면 삼학리 685 612㎡ [토지서측경계부분디지상 [삼학리686번지] 건물일부부갈채소재, 정확한지적경계확량요, 수목 [감나무들]포함매각, 제외외비닐하우스매각제외]	답	13,146,000 13,146,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공부상임야이나현황 '전'
		나주시 이항동 108-9 181㎡ [이속회3/10지분전부]	대	77,526,000 77,526,000	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회제 한)]
2022타경 68498	1	동소 84 275㎡ [이속회3/10지분전부]	대	77,526,000 77,526,000	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회제 한)]
		동소 109-1 662㎡ [이속회3/10지분전부, 매각제외타인소유건물소재 [경정명가서첨조]]	대		
[자동차, 중기]					
2022타경 67662	1	사율면민사지:광산구 원방동대로826번길 21-11 [상업용] 등록번호:46조6500 차량:애쿠스 연식:2012[중기차사고이력정보보고서 [C arHistory]상내차사고발생[피해]3회[2016.05.04수리 [견적]비용668,238원, 2015.03.12보험금595,900원, 2013.01.27수리 [견적]비용1,029,240원]있음]	자동차	10,000,000 10,000,000	본권:광산구대리224-1, 현대주차권[010-5550-8424]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인고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행위 변경으로 인한 현상복구기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 공공차기 임시행방 제30조에 의한 우선매수인고인일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10%으로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의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 우선 매수인고인으로 본다.
- 매각기일 : 2022. 11. 11. [과] 10:00
- 매각결정일 : 2022. 11. 18. [과] 14:00
- 매각장소 : 광주지방방법원 입찰방방
- 매각방법
  - 입찰방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일괄봉투로 봉투에 투입하여 넣는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고매각가격의 1%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기과 불행의 지기유수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입찰 보증서)를 준비하여 넣는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계약서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이다.
  - 입찰봉투의 부인이 증명된 관례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와 최저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가매수인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와 최저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 최고가매수인고인과 지분유대매수인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은 입찰보증금이 증빙되지 않으면 즉시 반환한다.
-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 최고와 최저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간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함이다. 대금지급기간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함이다.
  - 지정된 대금지급기간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매각결정일로부터 지정된 날의 3일만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도 지런하지, 비행을 납부하면 대금납부서 유예하고, 미납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함이다.
- 소유권이전 및 인도
  -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장권, 기압등권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대권이나 기압등기 및 등기사항을 위해서는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함이다.
  - 지정된 대금지급기간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매각결정일로부터 지정된 날의 3일만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도 지런하지, 비행을 납부하면 대금납부서 유예하고, 미납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함이다.
- 주의사항
  - 매각된 주택 등은 허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장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2년 후부터는 특별전입신고로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은 해당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이다.
  - 입찰인정의 유효성: 공공차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결정 명세서, 현상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유인받은 인사직원(신회)에 비치하여 열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열람을 통한 정보 확인을 실시한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나ოს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변형에 필요요인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장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이다.
  - 소유권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인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됨이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 의하면 매각이 허가될 수 있음이다.
  - 공고된 물건은 매각되기 전에 경매신청이 취소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함이다.
  - 신분과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문을 하지 않으므로 유린방안 계산과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합니다.

매각일과 공고의 요지는 다만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공고정보검색 [주: 대한민국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정보 제공도목 한정되어 있고, 이따는 그들 국민들의 위하여 무료 제공됨] 것으로서, 공고 시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사유로 매각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지급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관공되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계신 매각결정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철저히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2. 10. 28.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공정배